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99 홍해작전 승전 일주일 앞으로

다음 주일 I · II · III부 예배 시 건축헌금

'99 홍해작전이 승전감사의 날을 일주일 앞두고 있다.

이번 홍해작전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표어로 오늘로 15일째 진군을 계속하고 있다. 참석자 수가 큰 변동없이 매일 많은 성도들이 꾸준히 참석하여 우리 교회의 홍해작전은 이제 단순한 연중행사가 아니라 기도의 진보를 위한 훈련의 장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특히 이번 홍해작전은 중보기도의 열매로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벽기도회 후 목사님, 장로님들과 가지는 중보기도의 시간이 나 개인별로 중보기도카드를 활용함으로써 벌써부터 기도 응답의 승전보가 있다라고 있다.

우리 교회는 홍해작전 중 드린 기도가 상당된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음 주일(27일) I · II · III부 예배 시 건축헌금을 드리기로 했다. 이번 건축헌금의 목표액은 45억

원이다. 성도들은 건축 경비를 평당 300만원으로 추산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헌금할 수 있다. 또 헌금을 작성할 수도 있는데 당회에서는 이번엔 작성하는 건축헌금은 가급적 2년 이내로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을 완성할 때까지 십일조 헌금과 같이 건축을 위한 십일조 헌금을 별도로 드리거나 특별한 물품으로 드리는 방법도 있다.

비전2020운동 300명 기드온 용사 모집

비전2020운동본부(위원장 홍정호 장로)에서는 300명 기드온 용사를 모집한다.

이는 우리 교회의 자매부대인 3사단과 68사단의 세례식 지원을 원활히 하고 기도 후원을

통해 예비교인 확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기드온 용사들은 정기적인 기도회 참여와 월 3000원 이상의 회비(군인 1인당 세세 경비 3000원)로 비전2020운동을 통한 군복음화에 동참하게 된다.

기드온 용사로 지원을 희망하는 성도는 오늘 주보와 함께 배포되는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비전2020본부로.

무지개회 총회

무지개회(회장 이경희 권사)는 18일(금)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으로 이인선 권사, 총무 박정순 권사를 각각 선출하고 임원진을 개편했다.

무지개회 회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교회의 희망과 아름다움과 언약의 무지개가 될 것을 다짐했다.

우리 교회의 비전2020운동

이병생(집사, 비전2020본부장)

비전2020운동이란 첫째, 2020년에 전국민(5,000만 명)의 75%인 3,700만 성도의 나라를 건설하여 건강한 국가를 이룩하지는 애국애족운동이다. 둘째, 건전한 종교활동으로 정신전력 극대화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통해 건전한 모범시민으로 육성하지는 신앙전력화 운동이다. 셋째,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한국 교회의 부흥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 건설에 이바지하지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이다.

비전2020운동 실천을 위한 주요 사항으로 군부대 내에서는 전도 세례, 양육, 신자 관리 및 지역별 실천교회에 연락 및 통보의 활동이며 일반 교회(앞서 언급한 실천 교회)에서는 연락 및 통보된 세례 군인 신자를 평소 군복무시절부터 교회 미래 출석 교인으로 등록, 관리, 양육하다가 전역 후에는 교회의 성도로

또 믿음의 형제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생활에 동참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역할은 모든 성도들이 군복음화가 바로 민족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확신과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이 운동에 협력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성도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직을 편성했다. 본부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은 운동방향 제시 및 당회와의 유기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서기와 회계가 있으며 각 부서는 기획부(총괄 기획 및 교회부서·기관 협력 등의 업무), 전도부(진중세례업무, 미래교인과 가족 전도활동), 후원부(후원업무), 교육부(군부대 내의 미래교인을 대상으로 서신·책자 발송, 위문심방, 교회초청 업무), 홍보부(대내외 홍보를 담당)

로 편성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전군적으로 시행하는 군전도 및 미래 교인 연결 관리뿐 아니라 교회 자체의 전도 활동까지 포함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교회 성도 중 입대 장정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을 입대 전 소집하여 단기 교육을 하고 입대 후에는 평신도 군 선교사 혹은 군 파견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역할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서울교회의 주요 역할은 10월 중에 실시 하던 교회 자체 전도 및 기도 활동과 군 전도 비전2020운동 그리고 교회에서 군에 보낸 파송 신자 관리 등 세 가지 주요업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교회 세례 교인 중 군문에 입대한 사람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앞서 언급된 활동을 힘써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주관해 온 육군사관학교의 진중세례식을 계속하는 한편 앞으로는 3사단의 세례식도 지원키로했다.

이사야 강해

두로의 회복

이사야 23장 15 - 18절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가운데 죄 지은 백성들에게는 진노하시지만 계속 매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신다고 하십니다(사 4:2-6, 7-장). 이것은 두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로는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나 회복의 은총이 올 것이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 두로의 황폐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기간을 정하시고 일하십니다. 두로 백성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오는데 이 환난의 기간은 칠십 년이라고 합니다(15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것처럼 두로 역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돌아올 때 두로도 같이 돌아온 것을 역사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두로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두로는 교만했고 사치하고 열락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두로에 살던 모든 거민이 그 도시를 떠나 황폐하게 되어서 그 도시를 기억할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로의 환난의 기간을 칠십 년으로 한정하셨습니다. 인간의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칠 팔십 년을 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2. 두로가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두로는 자기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곤고한 자리에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회복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두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시어서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무역의 왕국이었고 번창하는 나라였던 두로가 망하니 세계 사람들이 두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에 대한 그의 분노를 멈추시고 옛날의 모든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당시는 아직도 두로가 망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사야가 두로가 망한

후에 올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상인들과 거민들이 모두 사라진 도시에 기생이 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다시 번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16절).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17절)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무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돈 버는 일을 음

은 규칙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정성, 신뢰성, 약속, 적당한 이윤, 정직성, 합당한 임금 지불 등의 상업 도덕이 있어야 합니다.

두로는 무역하여 번 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상업을 하는 것은 의를 드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합 같이 칠십 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칠십 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 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 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서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사 23:15-18)



이종운 목사

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골 3:5).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약 4:4).

두로 백성들에게는 회개한 흔적이 확실히 드러납니다(18절). 두로 백성들은 무역을 해서 이익을 남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원래 두로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신앙이 생겼습니다(느 13:16). 그러므로 두로에게는 환난이 그 민족을 새롭게 하는 복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로는 비통함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두로는 돈을 벌어서 신전에 바치고 연락을 취하며 죄 짓는 일에 몰질을 사용했으나 이제는 그들의 몰질 사용법이 달라졌습니다.

두로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예물을 보냈다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이 성전을 재건할 때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스 3:7). 이리만 추구하는 상업을 기생이라고 한 것은 못 남자들의 돈주머니에만 신경을 쓰는 기생에 비유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

러내는 기회이며 자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기적 이윤 추구를 하는 상업에 종교적 정신이 들어가면 가난한 자를 돕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두로의 상인들이 무역한 것으로 제사장들의 양식과 옷감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쳤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세상일에 매이지 않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행하든지 얻게 되는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야 합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구제를 하고 경건한 헌신을 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두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복을 받았습니다(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 두로를 건져내시고 유다 백성들보다도 먼저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두로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큰 희망을 준 것입니다.

두로가 받은 회복과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므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고 번영의 도시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흥해를 건너며 ●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 놓고

다소정(청년부)

20세기 마지막 흥해작전이 매일 아침 다섯 시, 아침을 함께 기도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서울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다. 산상보훈의 진수를 말씀으로 받고, 일곱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안에서 신행일치의 삶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작전목표 역시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으로 은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고 있다.

올해 내 앞에 흐르던 흥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깊고 험난한 물살이 이는 한밤중의 바다였다. 태어나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린 것이 처음이었으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메이며 부유하고 있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은 늘 같은 내용이었다.

“하나님, 얼마나 더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어디에 계신 것이어서 이토록 참혹한 고통 중에 우리를 버려 두시며 쫓아지는 아픔을 감내하도록 강요하십니까?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고 하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나와, 우리의 동행하심을 지금 보여 주실 때가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왜 우리를 외면하시나이까? 우리로 주의 긍휼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소서.”

아버지(故 나희주 장로)의 치유를 위해 어

는 시골에 둘러앉아 기도하던 우리 네 가족의 무릎이 것처럼 견고하고 간절하기도 처음이었다. 합심해서 기도했고 믿음대로 얻으리라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맞섰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새벽기도를 하시면서 마치 처음 주님을 영접한 이와 같이 뜨거우셨고, 매일 아침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셨다. 좋으신 하나님은 아버지를 데려가시기에 앞서 그렇게 준비 시키신 것이었지만, 믿음이 적은 나는 자꾸만 고개를 가우 뚱겨렸다. 새까맣게 많은 서울의 인파 속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만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웠고, 모든 것들이 아득해지기만 하였다.

어느날, 괴로워하는 내게 누군가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 충고를 해주었다. 내 마음에 독화살이 꽂히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먼저 독화살을 빼는 일이란 것이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쏘았는지는 그 다음의 일이라고 했다. 과연 그렇다. 하나님께 ‘왜입니까?’를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 중에도 내 가슴엔 독이 퍼져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흥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사랑하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셨고, 낙담하거나 물러서

지 않았으며, 고단했으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게 큰 힘이 된다.

내가 힘들고 괴로운 중에 있었던 것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지 알 수 없어서였는데, 반대로 내가 감사하고 마음이 평온한 것은 그럴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인 것도 아름다운 변화였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여러 성도들을 도와 남은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사랑을 나누게 하였고 두렵고 떨리는 중에도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워 주셨다. 고난과 시련은 깨어 기도해야 할, 삶에 대한 긴장의 질료이며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귀한 경험이기도 하다.

흥해를 건너며, 겨울에 씨를 뿌리는 이는 추수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척박한 마음밭에 심는 말씀의 씨앗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자랄 것이고,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으면 불변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느 해보다도 드세고 무서운 흥해를 건너며, 괴롭고 슬펐던 세상의 근심이 검은 고통의 동공이 되어 세상의 흰자위로 스미지 않고 오히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동자가 되어 주는 것임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따라 나는 오늘도 흥해를 건넌다.

서울교회 온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 사는 복된 자의 아침이, 날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신순우(집사, 제 4교구)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성도의 특권이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스스로없이 대화를 해 왔으나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

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던 고등부 시절에 준비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도록 지명을 받아 진땀을 흘린 경험을 한 뒤로부터는 기도공포증(?)에 걸려버렸습니다. 청산유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 9월부터 아내에게 억지로 끌려나오다시피 하며 매일새벽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잠이 많은데다 늦게까지 자는 습관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큰

고역이 아닐 수 없었고 사무실에서는 회의 중에도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 기도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일이라 상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는 제 자리에서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었으며 연임을 원했지만 원칙적으로 연임시키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새로 선정된 후보명단에서 제외되었기에 실망이 큰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언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약4:2-3).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보조자로 생각하는 잘못된 기도를 했음을 회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다고 고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는 말씀에 의지해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기한 상태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장 하셨는지요?”

생명을 위한 서명

김세재 (집사, 탈북자보호UN청원운동 서울교회 본부장)

북한의 한 가족이 탈북하여 미국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그들이 탈북 후 강제 송환에 대비하여 온 가족이 늘 위약을 들고 다녔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미국 하원은 탈북 난민들을 구조하고 회당국으로 망명시키기 위해 3000만 달러의 예산 편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회가 개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서명 본부를 발족하고 흥해작전 개시일에 맞춰 6월 6일부터 3단계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금번 서명운동은 탈북자들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2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12개 교구와 5개 교회학교 모두 17개 팀으로 나누어 팀별 목표를 부여하고 매주 진도율을 발표하게 됩니다.

제 1단계는 전 교인이 서명지 1장씩(30인) 서명을 받는 것으로 6월 말까지 계속 됩니다. (옛날에 마치고갔어요? 예, 서명본부 발족 전에 접수했던 것 말고 한 장 더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교인 중 주위에서 3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안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께 여쭙어 보세요. “한 장 하셨는지요?”)

제 2단계는 각 팀별 복수 서명운동입니다. 7월 말까지 17개 팀이 다량방, 남·녀선교회, 교구별로 전도를 결한 노상서명운동을 전개 하는데 이미 실시 중인 팀도 많이 있습니다. 1·2단계 서명수취 목표는 이미 접수된 것을 포함하여 10만 명입니다.

제 3단계는 유관단체를 통한 집단 서명운동으로 전개됩니다. 기독교 유관단체, 회사, 노조,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서명본부 운영위원들이 섭의를 통해 10만 명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위에 연고나 섭의가 가능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늘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나 내일이면 늦는 일도 있습니다.

오는 주일까지 전 교인 한 장 서명받기 운동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서서 지치고 의

로운 가운데 중국 대륙을 방황하고 있는 수십 만 탈북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UN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

이보람(대학부)

우리 교회 청년부와 대학부에서는 5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강남역 일대에서 탈북자 보호를 위한 UN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토요일 오후, 회원들은 교회에 모여 먼저 기도회를 갖는다.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회를 갖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과 탈북 난민들을 위해 그들의 노력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그날의 서명운동을 위해 그리고 서명에 동참할 또다른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처음에는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조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서 아쉬웠다. 그러나 5월 29일부터는 미리 허가를 받고 강남역 부근 거리에 테이블을 이용한 가두대를 설치하고 관련 신문자료들을 붙여 만든 피켓 등을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거리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이 운동의 취지도 잘 모른 채 자신은 불교신자라며 설명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자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 일을 잘 알지 못해 시큰둥하게 반응하던 사람들도 설명을 듣고 나면 좋은 일이라며 자원하여 서명하기도 한다. 서명운동에 대한 내용이

신문지상 등을 통해 알려져서인지 서명에 동참한 이들 중 다수가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고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몇몇 외국인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매주 이 일을 전개하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에 감사를 드리곤 한다. 단지 한 사람의 서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지나치게 인간적인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되돌아보기도 한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매 순간 깨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땀과 수고와 열심들이 차컷 헛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주님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달라고 기도한다.

서명운동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21일(월) 연세백주년기념관에서 제 19회 연세목회자세미나 개최 강연을 하며 22일(화) 천안의 고신 신대원에서 고신목회자세미나 특강을, 24일(목) 청주서문성결교회에서 126기도회가 주관하는 6·25구국 대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정해진·이애자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바울 제 2선교회는 21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 음향실에서는 우리 교회 여성도중 세례교인으로 방송에 관심이 있으며 행사마다 자원하여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 연락 및 문의는 예배위원회 혹은 사무국으로 (☎517-7651)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흥해작전의 승전을 위해
2. 탈북자 보호를 위한 UN난민청원운동을 위해
3. 비전2020운동을 통해 민족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